

성루마다 환영의 북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② 황도 금릉으로 가다

자사 소양은 조정의 어사에게 조서를 읽게 했다. 어사는 소매 안에서 조서를 꺼내 펼쳤다. 달마 조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달마는 어사를 향해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런 달마의 태도에 함께 온 자사는 순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속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조사 앞에서 감히 그런 사실을 지적할 수는 없었다.

어사는 그대로 조서를 읽어 내려갔다. 달마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다. 어사가 조서를 다 읽었는데도 달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땅히 폐하의 은혜를 고마워하는 인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입도 병문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달마가 눈을 떴다. 그러곤 '깡깡'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과찬이신 것 같소. 아무튼 이 나라의 황제는 불심이 돈독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구려. 이게 다 인연이오. 암 인연이고 말고... 자, 그러면 가십시오. 이 늙은이가 어사를 따라 당장 출발하겠소이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달마는 방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갈 길을 재촉했다. 달마의 그런 태도에 오히려 어사가 당혹스러워했다. 달마는 어사의 그런 마음을 읽고 웃으면서 말했다.

"출가인은 사해(四海)가 모두 자기 집인 것이오. 위로는 천자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제후에게도 경양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출입하고 자유로이 오고 가는 것이외다. 자, 어서 떠납시다."

어사는 그제야 그 연유를 깨닫고 황급히 조사에게 절을 했다. "성상(聖上)께서 마차(馬車)를 보내주셔서 지금 사찰 밖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법성사 앞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조사를 연호하는 소리에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달마를 떠나보내는 이 곳 사람들의 심정은 한결같이 스산했다. 비록 황제의 초청으로 가는 영광된 길이지만 이 곳 사람들로선 그렇게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아쉬움에 울부짖는 이도 적지 않았다.

"땡! 땡! 땡!..." 법성사의 종고루에서 종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종소리를 듣고 절 안에 있던 승려들이 모두 몰려 나왔다. 승려들은 삼시간에 유희선실에서 절 입구에 이르는 길 양쪽으로 줄지어 섰다. 나이 많은 스님이나 젊은 스님, 비구니와 사미승 할 것 없이 달마 조사의 가는 길 앞에 열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한 채 입으로 불호를 외쳤다. 달마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합장한 손으로 일일이 답례했다.

광지 주지, 자사 소양 및 조정 어사의 호위를 받으며 달마는 천천히 절 대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러나 육중한 절 대문은 웬일인지 여지껏 닫혀 있었다. 달마가 대문 가까이 이르자 건장한 젊은 스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찔찔했다. 아침저녁으로

쫓겨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달마가 마차에 오르자 황궁에서 파견된 200여 명의 호위 병사들이 일제히 마차를 에워쌌다. 승려들과 대중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땅에 엎드려 '조사님! 조사님!' 하고 소리 높여 송축했다. 달마는 마차의 휘장을 젖히고 전송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거듭 표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대문

달마가 마차 안에 좌정하자 어사는 출발을 명했다. 마차 앞엔 깃발을 든 군사가 길을 인도하고 양 옆은 갈과 창으로 중무장한 군사들이 에워쌌다. 어사는 마차 뒤를 따라갔다.

달마가 떠난 뒤에도 광주성 안은 여러 날 동안 떠들썩했다. 달마가 조서를 받고 떠난 일을 두고 한껏 이야기꽃을 피웠다.

문무백관들은 참례전 밖 계단 앞에 두줄로 엎드려 보리달마를 영접했다

로 대문을 여닫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따라 대문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여러 명의 스님들이 담벼락에 힘겨워 대문을 밀었다. 그러나 대문은 빼겨터지기만 할뿐이었다.

이런 초유의 현상에 모두가 당황했다. 광지 주지와 자사 소양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달마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 듯 대문 앞으로 다가서더니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었다. 이윽고 대문이 문틀에 꼭 끼어 있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곳을 가볍게 흔들며 조정한 다음 대문을 열어 보라고 일했다.

대문은 아주 쉽게 열렸다. 대수롭지 않은 이런 일에서조차 신비로움을 느꼈는지 모두들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달마는 큰결음으로 문지방을 성큼 넘어섰다. 대문 밖의 대중들은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다. 달마는 정중하게 합장의 답례를 했다.

밖에는 노란색 휘장을 두른 마차가 한

시간이 갈수록 이야기가 과장되어 달마는 신비로운 존재로 부풀려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사 소양은 연일 자축연을 열기에 바빴다. 서천에서 온 대조사를 최초로 모신 것과 상소를 올린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무제로부터 곧 큰 포상이 있을 것이라는 청송의 말이 주변에서 끊이지 않았다.

천축조사 보리달마를 태운 마차는 드디어 황도(皇都)인 금릉(金陵)에 도착했다. 지금의 남경(南京)인 금릉의 본래 이름은 건업(建業)이었다. 이것이 진 나라 때 건강(建康)으로 바뀌면서 금릉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무제가 양 나라를 세운 뒤 금릉은 명실공히 정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구실을 했다. 특히 불교의 대본산으로 자리잡았다. 무제는 불교를 국교(國敎)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이치를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했다. 금릉의 도성 안에



◁민봉 스님 작 달마도(모시에 수묵).

만 무려 500개가 넘는 절을 지었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승려를 불러모았다. 그 가운데서도 동태사는 특히 규모가 엄청났다. 무제가 출가했던 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안팎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절에 주석하는 고승(高僧)만 100명이었고, 고승을 받드는 문도는 1,000명이 넘었다. 매일 찾아드는 신도 역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였다.

호위병에 둘러싸인 달마가 도성 문안을 들어서자 성루마다 환영의 북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도성 안 길거리엔 이미 청실과 홍실이 치렁치렁한 초롱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다. 초롱에는 예외 없이 노란색으로 '불(佛)'이라고 쓰여 있었다. 거리에는 물러 나온 환영인파로 한 발짝도 움직일 틈이 없었다. 모두들 조사의 모습을 보려고 아우성이었다. 가까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달마가 탄 마차라도 보기 위해 인간 힘이였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자신들에게 복이 내릴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황궁 안의 참례전에는 붓물이 환하게 밝혀졌고, 침향을 태우는 향기가 그윽이 감돌았다. 한가운데 커다란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연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무제는 곤룡포에 옥대를 하고 위풍당당하게 탁자의 위쪽 정중앙에 앉았고 시

신(侍臣) 정각과 법광이 좌우에서 보필했다. 무승 쥘타는 눈을 부릅뜨고 뒤에서 호위하고 있었다. 문무대신들은 양쪽으로 줄지어 서서 달마 조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참례전 밖엔 한 무리의 근위병들이 칼과 창 그리고 도끼로 중무장한 채 대문 앞까지 도열하여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폭죽소리가 들리면서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집례관이 전각 안으로 들어와 아뢰었다.

"보리달마 조사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문무백관들은 일제히 참례전 밖으로 나와 계단 앞에 두 줄로 엎드려 영접했다. 달마를 태운 마차는 딸랑딸랑 요령소리를 내며 참례전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마차의 노란색 휘장이 걸리면서 달마가 내려섰다. 문무백관은 한쪽소리로 외쳤다. "삼가 대조사를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달마는 입으로 불호를 외우면서 합장으로 답례했다. 달마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참례전 안으로 들어갔다. 문무백관들도 황급히 몸을 일으켜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무제의 양쪽에 줄지어 섰다.

장중한 분위기의 궁중 음악이 연주되었다. 음악이 그치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송(頌)을 지어 읊었다.

"우리는 성상(聖上)의 귀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대량(大梁)에 불법을 드날리시고 불업(佛業)을 드러내셨습니다. 큰 가르침으로 교화를 펴시고 오계(五戒)를 넓혀 중생을 훈도하셨습니다. 이에 불교가 더욱 발전하게 되고 선법(禪法)의 기운이 바야흐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무제의 공덕을 드높이는 송(頌)은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모든 게 무제가 이른바 '불심천자(佛心天子)'임을 달마에게 깊이 인식시키려는 각본에 따라 진행했다.

달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문무백관들과 정각, 법광, 쥘타 등을 한 차례 둘러본 다음 무제를 쳐다보았다. 머리 위에 황관을 쓴 무제는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달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면서 몸을 굽혀 예를 표했다.

"성상을 뵙습니다. 아미타불!" 이때 여러 신하들은 비로소 고개를 들고 달마를 바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달마의 모습에 모두 내심으로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폐하께서 초청한 대조사가 그토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퇴짜당한 늙은이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생각이 빛나가지 신하들은 맥이 풀렸다. 조금 전까지의 긴장감은 에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서로 눈짓을 하며 이죽거렸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그러나 무제는 달랐다. 여러 신하들의 기가워하지 않는 기색을 보고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달마가 무릎 꿇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무릎을 느꼈다. 그는 웃으면서 자리를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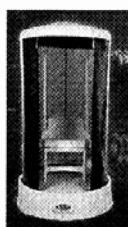
시신 정각은 공손하게 달마에게 무제의 옆자리에 앉도록 청했다. 달마는 사양하지 않고 '고맙소' 하고는 곧바로 자리에 앉았다. 무제는 신하들을 한 번 훑어본 후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천축조사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만리 바다를 건너 이 나라에 와서 불법을 널리 펴시려 하니 이는 우리 나라의 행운이자 우리 불문의 복이라 할 것이오. 짐은 오늘 여기서 연회를 베풀어 조사를 환영하고자 하오. 한편으로는 조사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의 선법과 높은 지혜를 듣고자 하는 것이니 조사께서는 기꺼이 가르침을 내려주소십시오."

달마는 무제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세 알아차렸다. 무제는 달마의 불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정도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에 대한 대우를 다시 결정할 작정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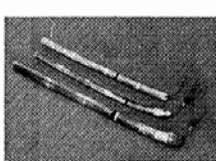
불교 최대 인터넷 쇼핑몰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 x 90cm x 172cm
- 중량: 본체-32kg, 의자-5.9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제거,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죽 비



- 부리죽비(대) 30,000원
- 부리죽비(소) 20,000원
- 일반죽비(2개 1세트) 18,000원
- 보급죽비(2개 1세트) 12,000원
- 죽비세트-부리(대)부리(소) 일반형 53,000원

또 건강벨트



- 내용물: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아미타, 시가잭 충전기/빛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기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108 나한단주



- 신복승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임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옥(玉) 다기세트



- 각종 절명차에 쓰이던 중국의 신강성 인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끊어졌으며 오늘날 여러 절명차 건강증진작용하는 한국천연옥(韓國天然玉)이 세계 유일의 재원 좋은 연옥이 되었다.
- 구성: 다관(1p), 속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 가격: 330,000원

사이버 에밀레 종



-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영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음 모듈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 정사각형 에밀레종: 210,000원
- 팔각형 에밀레종: 250,000원

만다라 옥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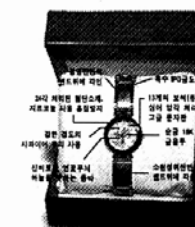
- 단순해 장식용이 아닌, 방향제와 엘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넣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격: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Dr.반다시(의자용)방석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할인가격: 25,000원 (*정상가: 35,000원)

연꽃 불자시계



- 불자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든든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심 맞춤형 시계
- 남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자담향 + 천연목향 + 향꽃이
- 가격: 50,000원